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제약 연구*

— -CLN(-量名)을 중심으로

김혜진**

목 차

1. 서론
 2.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론적 접근
 - 1)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문법성과 화용성
 - 2)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위치성과 화용적 층차
 3.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제약과 문장독립성
 - 1) 자동사와 타동사
 - 2) 타동사 목적어의 지시성
 - 3) 시공간 위치요소
 4.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제약과 문맥경향성
 - 1) 동사에 따른 경향성
 - 2) 목적어의 지시성에 따른 경향성
 - 3) 시공간 위치요소에 따른 경향성
 5. 결론
- [참고문헌]

국문초록

본 연구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제약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자동사와 공기할 때 적형의 문형이 존재하다는 점에서 비문법적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타동사 목적어의 지시성, 시공간 위치요소와 같은 조건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0221)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수료

들은 문장층위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에 관여한다. 반면 담화층위에서는 다양한 양상으로 분석될 수 있다. 담화층위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문맥적 한정성을 통해 위치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위치성에 따라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실현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연언어가 만들어 내는 수많은 문맥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다양한 화용적 제약들이 상호 관련성을 통해 발현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키워드: 비한정명사구, 일량명(一量名) 주어, 수량구 주어, 지시성, 위치성, 한정성, 타동성, 분류사, 부정관사, 정언문, 단언문

1. 서론

본 연구는 지시적 의미로 해석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제약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문두에 출현하는 비한정명사구는 종종 원어민 화자의 직관에 의하면 부자연스럽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학계에서도 비문법적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¹⁾

- (1) a. * 一个人来了。
b. * 一位客人来了。

(1a)는 비한정명사구 주어의 비문법성에 관한 전형적인 예이다. (1a)에서 ‘一个人’은 수량을 초점화하는 강세가 존재하지 않고, ‘一个人’의 ‘人’은 명사의 범주체계에서 상위어(hyperonym)로 분류되어 어휘화과정을 통한 고정적인 단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비한정명사구의 명사를 하위어(hyponyme)로 바꾼 (1b) 역시 의미적으로 완

1) 朱德熙(1981/2007:97)에서 인용.

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문법적인 예시로 분류되곤 한다.

중국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문두에 출현하는 비한정명사구의 제약은 크게 두 가지로 귀납할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문장 내에서 비한정명사구의 한정성을 높여줄 정보량에 관한 것이다. 명사구 자체의 정보량 증가, 혹은 술어부의 정보량 증가, 기타 부사어를 통한 문맥적 정보량 증가 등을 통해 비한정명사구 주어가 용인된다는 해석이다. 范继淹(1985)에서는 문두에 출현하는 비한정명사구의 분포를 용인가능하게 하는 언어 환경을 고찰하였는데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 의성어 등의 기타 성분이 비한정명사구에 선행할 수 있고, 자동사가 오는 경우 술어의 보충적인 성분이 많아야 한다고 하였다. 문두 비한정명사구에 관한 范继淹(1985)의 효시적인 연구는 비한정명사구의 정보량과 제약조건과의 상관관계 측면에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는데, 주요하게 内田 庆市(1993), 讚井 唯允(1993), Xu, Liejiang(1997), 王灿龙(2003), 曹秀玲(2005), 魏红·储泽祥(2007), 雷桂林(2008), 陆炼·藩海华(2009), 刘安春(2003), 周思佳·陈振宇(2013) 등의 연구가 있다. 두 번째 관점은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비문법적 측면에서 존재동사 ‘有’의 첨가이다. 구체적으로 ‘有’의 첨가는 통사적으로 문두에 위치하는 비한정명사구의 비전형성을 상쇄시킬 뿐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더한다는 의미적 해석에 의해서 문법적 표지로 인식된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에서 비한정명사구가 정보량에 관계없이 동사 앞에 출현할 수 있는 제약으로 ‘有’자의 첨가를 들고 있다. Teng(1975)은 존재 연산자를 사용하면 비한정명사구를 동사 앞에 놓을 수 있는데, 중국어의 존재연산자는 바로 ‘有’라고 하였다. 朱德熙(1981/2007) 역시 비한정명사구가 주어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有’가 사용되어야한다고 하였다.²⁾ 이러한 관점들

2) 朱德熙(1981/2007)는 특히 ‘那位客人来了’은 가능하지만 ‘一位客人来了’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원어인 화자의 직관과 주어의 한정성이라는 의미론적 기준에 의해 형성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有一位客人来了’와 같이 문두에 ‘有’가 오면 ‘一位

은 주어의 정보량 증가라는 언어의 보편적 현상과 원어민 화자의 직관에 의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자연언어의 무수한 문맥 속에서 이러한 분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예들을 많이 관측할 수 있었다.³⁾

(2)a. “咳！这也是不得已而为之！”一位客人说。

“아이고! 이걸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야!” 한 손님이 말했다.

b. 还没喊完, 忽闻前面人声鼎沸, 不久轰然巨响, 一个女人跳楼了。

아직 다 외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앞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고 얼마 안 있어 핑음이 났다. 한 여자가 투신했다.

c. 美帝国主义这种灭绝人性的罪行, 必将激起越南人民更大的仇恨, 他们一定要遭到越南人民更沉重的打击和惩罚。(附图片) 一个美国人正在研究毒物的感染程度。

미제국주의의 이런 비인간적인 범죄는 반드시 베트남 인민들의 원한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베트남 인민에게 더 심한 타격과 징벌을 받아야 한다. (사진첨부) 한 미국인이 독극물의 감염 정도를 연구하고 있다.

d. 一天晚上, 全家人学了《纪念白求恩》以后, 我妈说: “一个外国人到中国来治病, 这个人的心眼可真好!”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紀念白求恩》을 공부하고 나서 엄마가 말씀하셨

客人'이 주어에서 '有'의 목적어(賓語)로 바뀌게 되고, 주어는 이미 알고 있는 확정적인 사물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에 위배되지 않게 되어, '一位客人'이 의미상으로 실질적인 (논리)주어가 된다고 하였다.

3) 본고에서 분석한 언어자료는 기본적으로 코퍼스 BCC(<http://bcc.blcu.edu.cn/>)에서 추출하였고, 기타 선행연구, 저서 등에서 발췌한 예문의 출처는 각주를 통해 표기하였다. 또한 관측을 위해 설정된 문장은 원어민화자에 의해 실제 담화에서 포착되는 '자연언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가공 언어'라는 설명으로 각주표기 해두었다. 관측 방식은 1차로 한중번역이 가능한 중국어 원어민 화자를 통해 제시된 한국어문장을 가장 적합한 중국어로 변환하고, 2차로 다른 중국어 원어민 화자에게 수용도를 검증받는 방식을 택하였다.

다: “한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치료를 해주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정말 선량하다!”

(2a-d)는 모두 자연언어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2a)와 (2b)는 명사구와 술어부에서 비교적 낮은 정보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문두에 위치할 수 있다. (2c)와 (2d)는 명사구와 술어부의 정보량이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견해에 부합하지만 존재동사 ‘有’의 첨가가 어색하다. 그렇다면 낮은 정보량과 존재동사 ‘有’의 사용이 불가분의 관계일까. 다음의 예를 보자

- (3) 你看照片, 一只熊猫吃竹子。这只熊猫似乎在等待长大后回到故乡中国的那一天。
 사진을 좀 봐, 판다 한 마리가 대나무를 먹고 있어. 이 판다는 고향 중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것 같아.

(3)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를 지닌 문장에서 명사구와 술어부에 수식어, 부사어, 개사구, 보어 등의 수식성분이 없으므로 비교적 낮은 정보량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어민화자의 직관에서 비한정명사구 ‘一只熊猫’에 존재동사 ‘有’의 첨가여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위와 같은 관측을 통해 자연언어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문맥 속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용인되는 언어 환경 및 제약은 문장층위를 넘어 문맥층위에서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용인가능성에 대한 조건들은 문장층위는 물론 담화문맥으로 분석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과 필요성을 토대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문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담화 층위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제약을 고찰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⁵⁾

2.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론적 접근

1)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문법성과 화용성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어의 문두 비한정명사구에 대한 제약은 문법적인 영역에서 종종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한정명사구가 문두에 출현하였을 경우 비문으로 처리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4) a.*一个女人来了。

b.*一个女人站着。

비문법적으로 인식되는 (4a,b)의 문장은 종종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적형의 문법성을 얻게 된다.

(5) a.来了一个女人。한 여자가 왔다.

4) 본 연구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一CLN(一量名)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수량 ‘하나’가 문법화를 통해 다른 수량과 구분되는 의미화용적 기능을 고려한 것이다. 유형론적 관점에서 수량 ‘하나’의 문법화 현상은 Givón(1981), Heine(1997)를 참고할 수 있고, 개별언어로서 중국어의 비한정표지 一CL(一量)의 문법화 양상은 김혜진(2020)을 참고할 수 있다.

5) CL은 분류사(Classifiers: CL)의 약자로 유형학적 관점의 용어이다. 중국어학계에서는 개체양사에 해당하는데, 범언어적인 측면에서 중국어의 개체양사는 분류사의 통사적 화용적 기능을 수렴하고 있어 유형론적으로 중국어는 분류사 언어로 분류된다(Allan(1977), Aikhenvald(2000)). 유형학적 관점에서 중국어 분류사에 관한 통시적 분석과 특징에 관해서는 박정구(2012)를 참고할 수 있다.

b.有一个女人站着。한 여자가 서있다.

통상적으로 (5a)는 존현문으로 분류되고, (5b)는 ‘有’ 첨가 혹은 유자문(有字句)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5a,b)와 같이 (4a,b)의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출현제약을 상쇄하는 적형의 구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두비한정명사구 구문은 종종 문법적 제약 층위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魏红·储泽祥(2007)는 다음과 같이 문법적 표지와 논항의 증가에 의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문법적 수용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다음의 예시를 보도록 하자.⁶⁾

(6) a. *我走进旁边一间舱室,一个女孩子铺床。

b.我走进旁边一间舱室,一个女孩子在铺床。

나는 옆의 한 선실에 들어갔다. 한 소녀가 침대를 펴고 있었다.

c.我走进旁边一间舱室,一个女孩子在悠闲地铺床。

나는 옆의 한 선실에 들어갔다. 한 소녀가 여유롭게 침대를 펴고 있었다.

魏红·储泽祥(2007)에서는 (6a)와 같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사용제약을 설명하기 위해 (6a,b)의 수용가능한 조건을 비교하고 있다. (6b)에서는 상적표지가 첨가 되어 있고, (6c)에서 부사어가 첨가되어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용인가능해진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单宝顺(2016)에서는 아래의 (7)과 같이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묘사성 의미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을 보자.⁷⁾

(7) 嘿! 一个小孩爬*(上去)了!⁸⁾

6) 魏红·储泽祥(2007)에서 인용

7) 单宝顺(2016)에서 인용

앗! 어떤 아이가 기어 올라갔어요!

그러나 (6)과 (7)의 비문법성은 비단 비한정명사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6)과 (7)의 문맥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那个孩子’, ‘明成’, ‘他’ 등의 한정명사구로 교체되어도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동일한 수용도를 얻는다는 점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6),(7)의 수용도는 중국어의 동사는 동작의 의미만 돌출되고 결과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맥 속에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보어 및 상표지가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중국어의 문법적 특성에서 기인한 결과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문법적 적합성에 따른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는 대부분 한정명사구에 의해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통해 일반적인 중국어의 문법성에 관한 것이지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문법적 제약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문두 비한정명사구를 용인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앞서 적형의 대담문을 가져 비문법적으로 인식되는 (4a,b)의 문장은 다음과 같은 변형에서 다시 수용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다. 다음을 보자.⁹⁾

(8) a.一个女人来到一家商店。한 여자가 한 상점에 왔다.

b.一个女人站在我家前面。한 여자가 우리 집 앞에 서있다.

(8a,b)에서는 동일한 문두 비한정명사구이지만 (4a,b)에 비해 수용도가 높다. (8a,b)에서는 (4a,b)에 비해 ‘到一家商店’, ‘在我家前面’와 같이 결과보어를

8) *(上去)의 표식은 Li and Thompson(1981/2013)를 참고한 것으로 적합한 문장이 되려면 반드시 ‘上去’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9) 관측을 위해 가공된 문장이다.

통해 문장 내 정보량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4)의 문장이 수용가능해질 수 있는 조건은 적합한 문법성을 지닌 구문으로의 형식적 변화 외에 정보량의 증가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량에 대한 접근가능성은 VS 어순으로 변형되는 구문이 존재하지 않는 언어와의 비교에서도 고찰해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중국어의 (4)와 (5)의 관계를 지닌 대담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魏红·储泽祥(2007:41)이 제시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를 한국어의 관점에서 판단해볼 수 있다. 다음의 중국어문장¹⁰⁾과 한국어문장을 살펴보자.

- (9) a. *一个小姑娘站着。
 b.?一个小姑娘站在他面前。
 c.一个小姑娘笑嘻嘻地站在他面前。
- (10)a.한 여자가 서 있다.
 b.한 여자가 그 사람 앞에 서 있다.
 c.한 여자가 히죽거리며 그 사람 앞에 서 있다.

중국어에서 魏红·储泽祥(2007:41)가 비문으로 측정하였던 (9a)에 해당하는 한국어문장 (10a)는 한국어의 통사적 규칙에 의해 비문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단지 (10b,c)에 비해 정보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을 뿐이다. 만약 (10b,c)와 같이 수정된다면 (10b)는 (10a)보다, (10c)는 (10b)보다 청자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더 구체적일 것이다. 다시 말해 (10c)의 발화를 통해 청자가 만들 수 있는 이미지가 더 정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0a)의 수용도보다 (10c)의 수용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

10) 魏红·储泽祥(2007)에서 인용.

은 문법적인 측면이 아닌 화용적인 측면의 해석이 될 수 있겠다. 이처럼 적절한 정보량을 보유한 발화의 수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¹¹⁾

이러한 관측을 통해 중국어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용인 가능한 환경, 즉 문두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제약은 정보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량이 많을수록 좋을까? 실제로 인간의 인지를 반영한 자연언어에서는 대화격률에 맞는 적절한 정보량이 요구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극소량의 정보도 극대량의 정보도 의사전달이라는 측면에 있어 수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 실제로 周思佳·陈振宇(2013)의 연구결과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사용되는 문장에서는 극단적으로 낮은 정보량과 함께 높은 정보량도 피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량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용인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적절한 정보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용인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량은 어떤 요소와 연관이 있을까? 문장 내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용인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량은 명사구의 수식어와 술어부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王灿龙(2003)은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접근가능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술어 혹은 명사구가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두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王灿龙(2003)에 따르면 간단명사구와 간단술어의 결합이 수용도가 가장 낮고, 반

11) 문장 수용도에 있어 정보량은 비단 비한정명사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가령 한정명사구는 비한정명사구보다 명사구자체에 내재된 정보량이 높으므로 주어의 위치에서 용인가능하다고 인식되지만 정보량의 차이에 따라 수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이 a에서 c로 갈수록 정보량이 늘어나고 단독발화에서도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어의 한정성 여부보다 적절한 정보량이 발화 수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 a. 오바마가 왔어요.
- b. 오바마가 한국에 왔어요.
- c. 어제 오바마가 한국에 왔어요.

대로 복잡명사구와 복잡술어의 결합이 수용도가 가장 높다. 그의 해설을 토대로 복잡성의 위계를 설정해보면 다음과 같다.¹²⁾

(11) 명사구와 술어의 공기양상에 따른 위계

복잡명사구+ 복잡술어 > 간단명사구+ 복잡술어 > 복잡명사구+ 간단술어 >
 간단명사구+ 간단술어

(11)의 위계에서 유추해보면 간단명사구에 상관없이 복잡술어이면 수용도가 높다. 반면 복잡명사구일지라도 간단술어라면 수용도가 낮고 정보량이 없는 간단명사구와 간단술어의 결합이 가장 수용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서 수식어보다 술어의 복잡성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용인가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单宝顺(2016)에서는 수식어와 술어의 정보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시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이 정보량에 대한 직관은 王灿龙(2003)의 해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을 보자.¹³⁾

(12)a.?一个学生睡着了。

b.一个学生在课堂上听着听着就睡着了。

한 학생이 수업 중에 듣다가 잠이 들었다.

c.?一个老师眼中的好学生睡着了。

12) 王灿龙(2003)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제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간단술어구조	복잡술어구조
간단비한정명사구	-	+
복잡비한정명사구	(+)	+

13) 单宝顺(2016)에서 인용.

d. 一个老师眼中的好学生在课堂上睡着了。

한 선생님의 눈에 든 모범생이 수업 중에 잠이 들었다.

(12)에서는 王灿龙(2003)의 분석틀을 따라 (12a)는 간단명사구+ 간단술어, (12b)는 간단명사구+ 복잡술어, (12c) 복잡명사구+ 간단술어, (12d)복잡명사구+ 복잡술어로 볼 수 있다. (12)의 수용도에서는 원어민의 직관적 해석에 의해 단순술어인 (12a,c)보다 복잡술어인 (12b,d)의 수용도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명사구에 대한 정보량보다 술어의 정보량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용인가능성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孔凡莲(2017)에 의해서도 제시된 바 있다.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명사구의 수식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는 코퍼스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 55%의 비한정명사구가 수식어를 갖지 않고, 45%의 비한정명사구가 묘사성 수식어를 갖지만 수식어의 길이가 길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는 수식어보다 복잡하고 긴 술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정량적 분석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식어 유무가 통계적으로 비슷하다는 점은 우리의 관찰과도 동일하다. 본고의 분석에서도 수식어를 지닌 명사구와 수식어가 없는 명사구의 비율(수식어 유: 54% 무: 46%)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문두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술어의 정보량에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각 요인에서 수식어 유무에 따른 상관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2)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위치성과 화용적 층차

담화지시체의 주어집성은 명사구의 형식이 아닌 문맥층위에서 부여되는 것이다. Wu(1998:65)에 의하면 이러한 구분은 형식적 한정성이 아닌 위치되지

않은 지시체(non-locatable referents)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였다. 백은희(2006)에 따르면 위치성은 한정성과 구분될 수 있는데, 예컨대 ‘我的一本书’는 비한정명사구의 형식이지만 확인 가능한 세트 안의 확인할 수 없는 지시 대상으로 위치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비한정명사구의 담화 문맥속의 층차를 추론해볼 수 있다. Wu(1998:75)는 비한정명사구라도 위치성이 존재하면 정언적 해석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을 보자.¹⁴⁾

(13) a.?One book is expensive.

b.Jan has bought some books, One book is expensive.

Jan은 몇 권의 책을 샀다. 한 권은 매우 비쌌다.

(14) 一位旅客说：“坐飞机到过多少机场 ………”

한 여행객이 말하길 나는 승객으로 많은 공항을 다녀왔다.

(13)에서 ‘One book’은 비한정적으로 인식되는데, (13a,b)의 두 문맥에서는 위치성이 다르다. (13a)에서는 위치성이 없지만 (13b)에서는 선행문맥 속에서 추론적 해석이 가능하여 위치성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추론적 해석은 선행어인 ‘some books’에서 추론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14)에서는 문맥 속에서 형성된 공항, 여행이라는 틀(schema)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한정명사구 ‘一位旅客’은 위치성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13a)와 달리 (13b)와 (14)에서는 개체에 대한 진술로 인식되어 주제-평언(T-C)구조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언어현상의 관측과 해석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지닌 화용적 층차를 위치성에 따라 구분하였고, 화용적 기능과 특성에 따라 세분하

14) (13a,b)는 Wu(1998:13)에서 인용, (14)은 范继淹(1985)에서 인용(Wu(1998:75)에서 재인용).

였다.

① 낮은 위치성: 낮은 위치성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문맥적 한정성이 없다. 담화지시체는 담화에 새롭게 등장하여 문맥적으로 선행담화를 통한 추론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주제지속성(topic persistence)¹⁵⁾이라는 화용적 기능¹⁶⁾에 의해 도입성과 단발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도입성에서는 담화지시체가 문맥에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위치성이 낮지만, 후행담화에서 계속 회자되어 주제지속성(topic persistence)을 갖고 담화주제로 남는 경우이다. 다음을 보자.

(15)我回头看到了一副令我气恼的景象：一个十几岁的黑胖男孩*i*，从柱子后冲出来，Φ*i*在那盛着钱币的铁碗前一弯腰，Φ*i*伸手将那张百元大票抓在手里，Φ*i*然后斜刺里蹿了。他*i*的行动快疾，等我反应过来，人*i*已在十几米外，Φ*i*沿着庙侧的小巷，Φ*i*向中美合资家宝妇婴医院的方向狂奔。那小男孩*i*生着两只斗鸡眼，好面熟，我一定在什么地方见过他*i*。想起来了，的确见过他*i*。他*i*就是我们初回来那年，在中美合资家宝妇婴医院开业那天，把一个用纸包裹着的黑瘦青蛙递给姑姑、将姑姑吓昏的小孩*i*。

나는 고개를 돌려 나를 화나게 하는 광경을 보았다. 한 10대 후반의 검고 뚱뚱한 남자아이가 기둥 뒤에서 돌진해 나와, 동전이 담긴 쇠그릇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손을 뻗어 그 백원짜리 지폐를 손에 쥐 후, 비스듬히 뛰어올랐다....

(15)에서 ‘一个十几岁的黑胖男孩’는 처음 시작되는 한 광경에 새롭게 도입되는 지시체이다. 따라서 ‘一个十几岁的黑胖男孩’를 추론할만한 선행어가 없

15) 새롭게 등장한 담화지시체가 후속담화에서 회자되며 담화주제로 작용하는 것을 주제지속성(topic persistence)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부정관사의 전형적인 화용적 기능이다(Wright & Givón (1987)).

16) 수분류사(Numeral classifiers)언어에서 ‘One+CL’의 화용적 기능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데, 중국어에서는 Sun(1988), Li(2000)를 참고할 수 있다.

으므로 문맥적 한정성이 없다. 그러나 ‘一个十几岁的黑胖男孩’는 비록 새로운 정보로 접근가능성이 낮은 지시체로 인식되고 있지만 후행담화에서 회자되며 특정성을 부여받고 담화 속에서 접근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단발성은 도입성과 마찬가지로 담화지시체가 문맥에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위치성이 낮지만, 1회성의 단발적인 등장에 의해 주제지속성이 없고, 따라서 담화주제와 무관한 경우이다.

- (16) a.去年我们在莫斯科看到了立体电影, 一辆汽车从银幕上开出来, 真叫人吓一跳。电影是进行群众宣传与教育最强有力的工具。
 작년에 우리는 모스크바에서 입체 영화를 보았다. 자동차 한 대가 은막에서 나오자 정말 깜짝 놀랐다. 영화는 대중 선전과 교육을 진행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 b.什么地方是大人们玩的地方, 偶尔也用来睡觉? 答案是“床”。画面上, 一个女人半裸着上身, 在按遥控器, 一个男人偎在她身旁呼呼大睡, 露出了两只光脚。
 어른들이 노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끔 자도 자는 곳인가요? 정답은 '침대'다. 화면에는 한 여자가 상반신을 반쯤 벗고 리모컨을 누르고, 한 남자가 옆에 붙어 쿨쿨 자면서 맨발을 드러내고 있다.

(16a)에서는 영화장면을 소개하는데 ‘一辆汽车’는 장면 속에 단발적으로 출현한다. (16b)에서 장면에 새롭게 등장하는 ‘一个女人’와 ‘一个男人’도 단발적 등장에 그친다.

② 높은 위치성: 높은 위치성에서는 담화지시체는 선행담화를 통해 추론될 수 있기 때문에 문맥적 한정성을 지닌다. 여기서는 선행어와의 추론방식이라는 화용적 특성을 통해 조음성과 제외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조음성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선행어와 공지시적(coreferential)인

관계를 갖는다.¹⁷⁾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17) a. 长年累月忘我地工作, 使早就积劳成疾的郑世堂终于倒下了。今年4月3日, 郑世堂被确诊为肝癌晚期。就在他生命之火即将熄灭之时, 他仍然念叨着: 我还想工作。临终前3天, 他还强忍巨痛, 屈身侧卧病床, 艰难地翻阅案卷, 颤抖的手想在案卷上签下自己的名字, 钢笔却掉下来了, 案卷上留下了一片墨汁, 一个平凡的人走了, 一座共产党人的丰碑却矗立在政和县20万人民的心中。

오랜 세월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피로가 누적된 정세당을 쓰러뜨렸다. 올해 4월 3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나는 또 일하고 싶다..... 임종 3일 전에도 큰 고통을 참으며 병상에 몸을 숙인 채 힘겹게 문서를 뒤적거리다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려다가 만년필이 떨어져 먹물 한 장 남기고, 한 평범한 사람이 가버렸다. 공산당원의 금자탑이 정화현 20만 인민들의 마음 속에 우뚝 서 있다.

(17)에서는 선행담화의 실체와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지시하는 실체가 공지시적 관계를 갖는다. (17)에서는 ‘郑世堂’의 행적을 기술하고 있는데, ‘郑世堂’는 이미 문맥적 한정성을 부여받은 담화지시체로 후행담화에서 대명사, 혹은 지시사 등의 한정명사구의 대응어로 조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한정명사구의 형식인 ‘一个平凡的人’로 재지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제외성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선행어로부터 추론가능하다. 선행담화에 설정된 집합 속에서 많은 개체들이 비한정명사구에 의해 제외되고, 하나가 선택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행담화에서 일정한 집합으로 한정되어진 개체들은 후행담화에서 비한정명사구에 의해 선택된 지시체 외에는 제외

17) 이성범(2001:272)은 “자연 언어에서 조용현상이란 광의적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표현이 그 해석을 위해 의미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기존 언어학에서 대응어에 의한 조용관계를 넘은 광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된다.¹⁸⁾ 다음을 살펴보자.

(18) 幸而别的人已经赶到，日本人不能再扔石头。一个日本人带着一把斧子，对准为首的人就劈下来，为首的人迅速一拳打中日本人的肚子，斧子落在车上。赶骡子的中国人跑掉，车停住了。

다행히 다른 사람이 이미 도착하여 일본인들은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았다. 한 일본인이 도끼 한 자루를 가지고 수장을 향해 겨누었고 수장은 재빠르게 그 일본인의 배를 가격했다. 노새를 몰던 중국인이 도망 가버려서 차가 멈추었다.

(18)에서 선행어 ‘日本人’은 수량적 집합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후행담화에서 비한정명사구 ‘一个日本人’는 나머지 개체를 제외하고 선택되어진 하나의 개체를 의미한다. 이때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선행담화에서 추론가능한 집합을 통해 선택되어진 하나의 개체로 인식된다.

이상으로 위치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주화된 의미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

표1. 화용적 층차와 화용적 특징

위치성	영역	특징
낮음	도입성	주제지속성을 통해 담화주체로 인식됨
	단발성	1회성 출현으로 단순 등장
높음	제외성	선행담화를 통한 연상적 추론
	조응성	선행담화를 통한 공지시적 추론

자연언어 속에서 발견되는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층차를 구분하기 위해 총1037개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¹⁹⁾ 각 범주의 빈도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18) Hawkins(1978/2015:130)에서는 한정성과 구분되는 비한정성의 특성으로 제외성(exclusiveness)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상정된 집합에 등장하는 개체들 중 나머지 개체들을 제외시키고 하나가 선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한정성의 특성은 포괄성(inclusiveness)에 의해 유일하게 지시되는 한정성과 구별된다.

Sasse(1987:523)는 이야기의 첫머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지시체에 대한 기술이 전형적인 주제판단형식으로 사용되는 예시를 통해 단언적 판단의 고정적인 형식이 문맥 속에서 화자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다음을 보자.²¹⁾

- (19) A lion that looked as if it had more teeth than a crocodile came up
to the two sleeping figures and licked one of them on the face
악어보다 이빨이 더 많은 것 같은 사자 한 마리가 두 명의 자는 인물에게 다가
와 그 중 한 명의 얼굴을 핥았다.

(19)는 어떤 이야기의 첫 단락으로 ‘A lion’은 문장에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사용으로 (19)의 문장은 단언적 해석을 위한 형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화자는 정언적 기술의 형식을 빌려 표현하고 있다.²²⁾ Sasse(1987)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 담화 속에서 단언적 기술에 따른 구문의 선택이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언어사용의 측면으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단언적 해석으로 인식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문맥 속에서 화자의 의도에 의해 정언적 해석의 형식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Sasse(1987:523)는 지시체의 주어집성에 따라 단언적 기술과 정언적 기술

21) Sasse(1987:523)에서 인용.

22) Lambrecht(1994:141)는 정언적 기술의 형식으로 단정적 판단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주제-평언 구조가 무표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a는 단언적 판단이고, b는 정언적 판단이지만 동일한 주제-평언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제-평언구조가 더 무표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a. It is raining. 비가 내린다.

b. It is leaking. 그것이 새고 있다.

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음과 같은 현상을 통해 설명하였다.²³⁾

(20)²⁴⁾ a. TRUman's DIED. Truman(은) 죽었다.

b. JOHNson's died. Johnson(이) 죽었다.

Sasse(1987:522-3)에 따르면 (20)은 모두 라디오 방송에 대한 발화로, 해당 인물의 사망이 처음 보도된 시점에 발화한 것인데, (20a)는 'Truman'의 건강상태가 언젠가 보도가 된 적이 있어 모든 국민이 'Truman'의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한 상황이다. (20b)에서 청자는 'Johnson'의 건강상태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Johnson'의 죽음은 완전하게 예상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20a)의 기술은 'Truman'에 관한 것이고, (20b)는 'Johnson'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기술된다고 하였다. (20)에서 주어는 모두 한정명사구로 동일한 주어집성으로 인식되지만²⁵⁾ (20a)는 정언적 판단

23) Schmerling(1976: 90): Sasse(1987:522-3)에서 재인용

24) Lambrecht(1994)에 의하면 서술어-초점 구조에서는 술어에 강세가 있지만 문맥에서 주어주체의 활성화를 위한 강세가 동반될 수 있다고 하였다. (20)에서 대문자는 단어 층위의 강세를 나타내는데, 주어와 술어에 강세가 있는 (20a)는 서술어-초점이고, 이때 주어의 강세는 주체로 활성화를 시키는 작용을 한다. 주어에 강세가 있는 (20b)는 문장-초점이다.

25) 동일한 형식의 지시체에서도 주어집성의 정도는 상이해질 수 있다. Loock(2013)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정명사구 내에서도 층차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는데, a는 상대적으로 청자에게 구정보(Hearer old)이지만 d로 내려갈수록 상대적으로 청자에게 신정보(Hearer new)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a.Barack Obama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arack Obama는 미국의 대통령이다.

b.Bill Clinton is a form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ill Clinton은 미국의 전 대통령이다.

c.Angela Merkel is the German Chacellor.

Angela Merkel은 독일의 총리입니다.

d.Nancy Pelosi is the Speaker of the House.

Nancy Pelosi는 하원 대변인이다.

으로, (20b)는 단언적 판단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주어의 정보적 지위가 판단유형의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Lambrecht(1994:171)에서도 주제-평언구조로 실현되는 단언적 기술에서 주어는 지시체의 접근가능성 정도가 낮다는 점에서 비한정명사구가 전형적일 수 있지만 단언적 기술과 정언적 기술에 대한 판단은 명사구의 형식에 의해 명확히 규정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단언적 기술로 인식되게 하는 언어적 요건은 무엇일까. Lambrecht(1994:170)에 따르면 자연발생적 담화(spontaneous discourse)와 같은 단언적 기술에서는 자동사를 갖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또한 자동사의 사용이 단언적 판단에 중의성을 배제하는 요소라고 하였다. 다음을 보자.²⁶⁾

(21)a. ... and then a BOY came in ..

그리고 그때, 한 소년이 들어왔다...

b. A BOY was run over by a CAR!

한 소년이 차에 치였어!

Lambrecht(1994:168-9)에 따르면 (21a,b)에서 'a boy'는 주체가 아니고 사건의 참여자로 작용하며 단언적 기술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이때 지시체는 대하여성에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자는 서술어에 표현된 정보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어 명사구를 정신적으로 식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자동사와 타동사의 사용을 통해 비교될 수 있다. 다음을 보자.²⁷⁾

26) Lambrecht(1994:170)에서 인용.

27) Lambrecht(1986:131): Wu(1998:68)에서 재인용.

- (22) a. JOHN called. 존이 전화했다.
 b. JOHN wrote a book. 존은 책을 썼다.

Wu(1998:68)에 따르면 (22a)에서는 자동사에 의해 단언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지만 (22b)에서는 동목구조에 의해 정언적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Sasse(1987:530) 또한 단언판단을 나타내는 어순변형에서 자동사, 접어화된 목적어를 지닌 타동사가 우세하다고 하였다.

이는 중국어 내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자동사와 공기할 때보다 타동사와 공기할 때 문장수용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었다. 다음을 보자.²⁸⁾

- (23)a.*一位记者来了。
 b.*一位记者躺着。
 c.*一位记者笑了。
 d.一个记者正在采访奥巴马。
 한 기자가 오바마를 인터뷰하고 있다.

(23a-c)에서 ‘来’, ‘躺’, ‘笑’는 각각 이동동사, 자세동사, 일반 자동사로 모두 자동사로 분류된다. 이때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공기할 경우 문장독립성이 낮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었다. 반면 (23d)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采访’이라는 타동사와 공기하였는데, (23a-c)보다 문장독립성이 높다. 이처럼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동사에 의해 문장독립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찰할 수 있었다. 이는 유형론적 측면의 언어현상과 이론적 해석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28) 관측을 위해 가공된 문장

그러나 한편으로 수많은 문맥 속에 등장하는 자연언어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이 담화층위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VS어순의 변형 없이 자동사와 함께 출현하는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4) a. 一个孩子哭, 整个宿舍的孩子都跟着哭了起来。

한 아이가 울자, 온 숙소의 아이들이 모두 따라 울기 시작했다.

b. 一滴雨水刚好落到脸上。

빗물 한 방울이 마침 얼굴에 떨어졌다.

(24)에서 ‘哭’와 ‘落’는 자동사로 VS어순의 변형 없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쉽게 공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립된 문장의 수용도와 달리 담화적 층위에서는 다양한 화용적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겠다.

2) 타동사 목적어의 지시성

앞서 언급했듯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문장독립성은 자동사보다 타동사에서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타동사에서는 어떠한 층차를 가지고 있을까. 唐翠菊(2005)는 타동성 관점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접근가능성을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타동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용도의 위계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25) a. * 一个孩子很聪明。

b. * 一位女记者叫刘知微。

c. 一位新来的保安打伤了一位顾客。

어떤 새로 온 경비원이 고객 한 명을 때려 다치게 했다.

唐翠菊(2005)는 (25a)에서 (25c)로 갈수록 동작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타동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唐翠菊(2005)에 따르면 높은 타동성은 시간성을 지니며 전경으로 작용하고, 낮은 타동성은 시간성이 없어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비록 그의 논지에서 타동성과 시간성의 인과관계가 모호하지만 타동성이 높을수록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관찰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목적어를 수반하는 타동사에서는 동일한 동목구조일지라도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의 수용도에 다음과 같은 위계가 존재함을 관측할 수 있었다. 다음을 보자.²⁹⁾

(26)a.?一个学生跳楼了。

b.?一个学生成为老师。

c.一个学生拿起我们做的装饰品。

한 학생이 우리가 만든 장식품을 집어 들었다.

(26a,b)에서 동사의 목적어‘楼’, ‘老师’는 모두 실체가 없으므로 비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26c)에서 목적어 ‘我们做的装饰品’는 지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장독립성 측면에서 (26a,b)보다 (26c)의 수용도가 높다. 문맥에서 관측한 타동사의 지시적 목적어는 다음과 같이 대부분 명사구 형식을 통해 나타났고, 한정성을 요구하는 분포에서 지시적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³⁰⁾ 이처럼 동사가 수반하는 목적어의 지시성에 따라 문장독립성이 달라진다는 점

29) 관측을 위해 가공된 문장

30) 목적어의 지시성 판단에서 묻다, 질문하다, 말하다 등의 말하다류 동사의 목적어, 알다, 느끼다 등의 지각동사의 목적어와 같이 문장형식을 목적어로 갖는 동사의 목적어는 지시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제외된다.

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목적어의 지시성은 타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Hopper and Thomson(1984:707)에서는 명사와 동사의 품사적 구분이 의미적 측면에서 전형성을 지니는 몇 가지 자질(예: 견고함(cocrete), 운동성(kinetic), 가시성(visible), 실질적 행위(effective action))에 의해 구분되는데, 견고함(cocrete)과 가시적임(visible)의 자질을 지닌 고정적인 물체는 명사로 인식되고, 실질적 행위(effective action)의 자질은 동사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적인 의미적 기준은 담화문맥 속에서 종종 제한적일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³¹⁾

(27) a. We went fox-hunting in the Berkshires.

우리는 버크셔로 여우 사냥을 갔다.

b. Early in the chase the hounds started up an old red fox, and we hunted him all morning.

사냥개들은 한 늙은 붉은 여우를 쫓기 시작했고, 우리는 아침 내내 그를 사냥했다.

Hopper and Thomson(1984:708)에 따르면 ‘fox’는 전형적인 명사로 인식되지만 (27)의 문맥 속에서는 명사어간(noun-stem)과 동사어간(verb-stem)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27a)에서 ‘fox’는 동사어간(verb-stem)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문맥에 의해 ‘fox’가 견고하고 가시적인 개체로 해석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7b)에서 ‘fox’는 개체화된 지시체로 인식되고 전형적인 명사의 지위를 얻는다고 하였다. Hopper and Thomson(1980:256-8)에서는 비지시적인 목적어를 수반하는 동사는 완료되지 않는 일반적인 행위(generic activities)로 인식되어 포괄적인 사건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31) Hopper and Thomson(1984:708)에서 인용.

해석에서 비지시적 목적어는 동사의 행위에 포함되어 전체 하나의 사건을 나타내는 자동사의 기능과 유사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어의 지시적 해석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문장 수용성을 높인다는 관측은 앞서 자동사의 관측과 마찬가지로 문맥층위에서 변경될 수 있다. 본고의 관측에 의하면 문맥 속에서는 지시적 목적어는 물론 비지시적 목적어를 수반한 동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타동사와 공기하는 비지시적 목적어는 주로 이합사로 분류되는 동목구조(예: 生病, 得病, 墜地, 上学, 举手, 绘画, 打水, 入学, 抽烟, 考研 등)에서 나타났다. 이외에도 속성적으로 해석되는 맨명사구에서도 비지시적 목적어를 찾을 수 있었다. 다음을 보자.

(28)a. 一个中科院副研究员的孩子明年要上小学了。

한 중국과학원 부연구원의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b. 一个十岁左右的孩子正在玩电子游戏。

한 열 살쯤 된 아이가 전자게임을 하고 있다.

c. 一个孩子被提拔为厂长。

한 아이가 공장장으로 발탁되다.

(28a-c)에서 목적어 ‘小学’, ‘电子游戏’, ‘厂长’는 모두 실체가 없는 비지시적 해석으로 속성을 통해 동사와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언어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현상을 통해 문장층위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언어 환경은 담화층위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3) 시공간 위치요소

중국어의 문장독립성은 목적어가 지시적인 타동사와의 공기에서 우세하게 높아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자연언어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문맥 속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공기하는 자동사는 물론 비지시적 목적어를 지닌 타동사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문맥 층위의 다양한 정보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가정해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적형의 문장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적 요소는 무엇일까.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한정명사구가 주어의 위치에서 용인가능해지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보량으로 부사어, 개사구 등과 같은 복잡한 술어성분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范继淹(1985), 讚井 唯允(1993), 内田 庆市(1993), 王灿龙(2003), 邓思颖(2003), 陆烁·潘海华(2009), 孔凡莲(2017) 등). 특히 讚井 唯允(1993:373)는 존재확립효과가 있다면 전제가 없어도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장소, 시간의 설정을 통해 존재확립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陆烁·潘海华(2009)에서는 존재연산자(存在算子)에 의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존재론적 의미가 구별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때 존재연산자는 시간과 장소로 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장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공간 위치요소³²⁾를 첨가하여 수용도를 관측하였고, 아래의 (29)와 같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다.

32) 본고에서는 술어종류, 목적어의 특성과 같은 통사, 의미적 특성 외에 문맥에서 정보량에 관여하는 시간, 공간의 모든 통사적 구조를 시공간 위치(spatio-temporal location)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시공간 위치요소는 보어, 개사구, 부사어의 형태로 나타난다.

- (29) a.*一个女人来了。 → 一个女人来到一家商店。
 b.*一个女人站着。 → 一个女人站在我家前面。
 c.*一个女人在笑。 → 一个女人正在我家前面大笑。
 d.*一个女人爬山了。 → 一个女人到非洲去爬山。
 e.一个女人拿起我们做的装饰品。

(29a-c)에서는 자동사와 공기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시공간 위치요소에 의해 수용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29d)에서는 비지시적인 목적어를 수반하는 타동사와 공기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시공간 위치요소에 의해 독립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29e)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지시적 목적어를 지닌 타동사와 공기하고 있는데, 시공간 위치요소의 첨가 없이 문장독립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정보량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측은 范继淹(1985)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공기하는 자동사는 복잡한 구조를 요구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시공간 위치요소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제약을 느슨하게 하는 화용적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제약과 문맥경향성

여기서는 앞서 분석한 문장층위의 수용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화용적 제약을 중심으로 담화맥락 층위의 경향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선행데이터 1037개에서 총 440개의 예시를 추출하였다. 관측 범위 내에서 다양한 요인에 따른 명사구 수식어와 술어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식어가 없는 $-+CL+N$ 구조와 수식어를 갖는 $-+CL+D+N$ 구조를 각각 220개씩 정

량적으로 추출하였다. 다음은 수식어의 유무에 따른 네 가지 범주의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3. 수식어 유무에 따른 각 범주의 출현 빈도

	-+CL+N	-+CL+D+N	합계
도입	42 (38%)	68 (62%)	110 (100%)
단발	59 (66%)	30 (34%)	89 (100%)
제외	89 (61%)	57 (39%)	146 (100%)
조용	30 (32%)	65 (68%)	95 (100%)
합계	220 (50%)	220 (50%)	440 (100%)

위치성이 낮은 도입성과 단발성, 위치성이 높은 제외성과 조용성으로 화용적 층차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문장독립성에 관여하는 언어환경 및 제약이 문맥층위에서 어떠한 연관성과 경향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동시에 따른 경향성

문장독립성 측면에서 자동사와 공기할 때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가 낮아진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담화층위의 문맥 속에서 자동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경향을 통해 각 영역이 지닌 기술적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각 의미범주에 따른 자동사와 목적어를 지니는 타동사의 빈도와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 각 의미범주에 따른 자동사와 타동사 빈도

	--+CL+N			--+CL+D+N		
	자동사	타동사	합계	자동사	타동사	합계
도입	28(67%)	14(33%)	42 (100%)	40(59%)	28(41%)	68 (100%)
단발	54(92%)	5(8%)	59 (100%)	23(77%)	7(23%)	30 (100%)
제외	19(21%)	70(79%)	89 (100%)	16(28%)	41(72%)	57 (100%)
조용	9(30%)	21(70%)	30 (100%)	22(34%)	43(66%)	65 (100%)
합계	110 (50%)	110 (50%)	220 (100%)	101(46%)	119 (54%)	220 (100%)



그림1. 각 의미범주에 따른 자동사와 타동사의 비율 경향

위의 표와 그래프에서 보면 도입성과 단발성은 자동사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 제외성과 조용성은 타동사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치성의 차이에 따른 경향성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지시체의 등장으로 인해 담화 위치성이 낮은 도입성과 단발성에서는 단언적 해석이 강하게 드러나는 자동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담화 문맥적 한정성을 지녀 위치성이 높은 제외성과 조용성은 타동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위치성에 따른 자동사와 타동사 공기비율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문맥적 한정성에 따른 고유한 화용적 기능과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그림2,3의 분산도에서 수식어 유무에 따른 상관성을 통해 수식어가 각 의미영역의 자동사와 타동사의 출현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관측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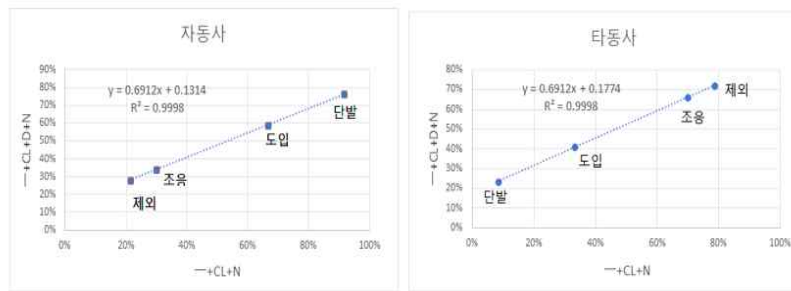


그림2(좌). 자동사에서 각 의미범주의 경향성과 수식어유무에 따른 상관성 비교
 그림3(우). 타동사에서 각 의미범주의 경향성과 수식어유무에 따른 상관성 비교

위의 분산도를 통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자동사와 타동사의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제외성과 조용성의 차이에 비해 도입성과 단발성의 차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도입성과 단발성이 문맥 속에서 지닌 화용적 기능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Sasse(1987)는 단언적 기술을 개체-중심(entity-central)과 사건-중심(event-central)으로 나누었는데, 개체-중심(entity-central)은 지시체가 부각되고, 사건-중심(event-central)은 지시체가 하나의 사건 속에서 해석되기 때문에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개체-중심적 서술은 주제판단과 구분이 모호하다고 하였다. 위치성이 없는 도입성과 단발성에서 자동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 단언적 기술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지만 도입성보다 단발성의 자동사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통해 단발성이 상대적으로 단언적 기술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도입성과 단발성에서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문맥 속에 처음 등장한다는 점에서 화용적 층차가 동일하지만 각각의 고유한

화용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자연언어에 나타나는 경향성을 통해 구분해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단언적 기술에 의한 제시적 기능을 나타내는 특정한 자동사의 경향성에서도 파악해볼 수 있다. 단언적 기술은 새로운 지시체를 담화에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제시적 기능을 갖는데, Li and Thomson(1981/2013)은 이를 제시문(presentative sentence)라고 하였다. Li and Thomson(1981/2013)에 따르면 제시문을 가능하게 하는 전형적인 자동사는 이동동사, 자세동사이다.³³⁾ 이처럼 특정 자동사에 의해 제시적 성격이 더 부각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동동사, 자세동사의 출현경향성을 통해 각 영역의 화용적 층차와 기능을 가늠해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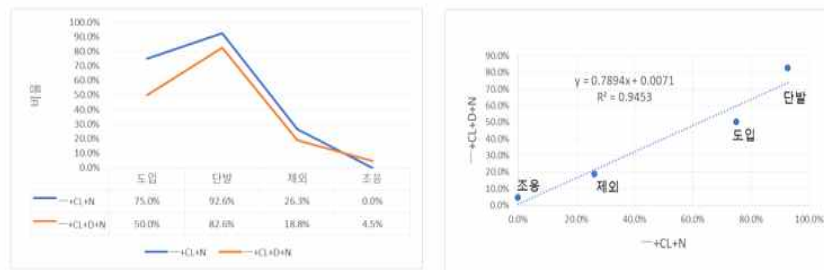


그림4(좌). 각 의미범주에 따른 이동동사, 자세동사의 비율 경향

그림5(우). 이동, 자세동사에서 각 의미범주의 경향성과 수식어 유무에 따른 상관성 비교

위의 표와 그래프에서 위치성이 없는 도입성, 단발성에서 제시적 기능의

33) Li and Thomson(1981/2013:485)에서는 ‘이동’을 나타내는 술어의 지시체의 공간 이동을 부각키며, 일반적으로 이동동사(Verb of Motion)에 의해 실현된다고 하였다. 중국어의 전형적인 이동동사는 来/去 류의 자동사라고 하였지만 倒(쓰러지다), 扔(던지다), 下(내려오다), 推(밀다), 跌(넘어지다), 摔(넘어지다)등과 같은 동작동사(action verb)가 처소구(Locative phrase)나 방향구(Directional phrase)와 결합하여 위치이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자세동사(verb of posture)는 ‘위치’를 나타내는데, 지시체가 어떤 행위에 의해 일정한 공간에 고정적으로 위치하게 됨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蹲(쭈그려 앉다), 趴(엎드리다), 浮(뜨다), 停(멈추다), 坐(앉다), 躺(눕다), 倚(기대다)등이 있다고 하였다.(Li&T(1981/2013:384))

이동동사, 자세동사의 비율이 위치성이 있는 조용성과 제외성에 비해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동일한 위치성을 지닌 도입성보다 단발성의 이동동사, 자세동사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단발성의 화용적 층차와 함께 도입성과 구별되는 화용적 기능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동사, 자세동사에서 이러한 경향성은 자동사의 경향성과 동일하다는 점을 파악해볼 수 있다.

2) 목적어의 지시성에 따른 경향성

문장독립성 측면에서 목적어가 지시적으로 해석될 때,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목적어가 비지시적인 해석에서는 수용가능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타동사 목적어의 지시성은 담화문맥 층위에서 위치성에 따라 어떠한 경향성을 보일까. 목적어의 지시성에 따라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목적어의 지시성에 따른 문맥층위의 경향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은 각 범주별 타동사 목적어의 지시성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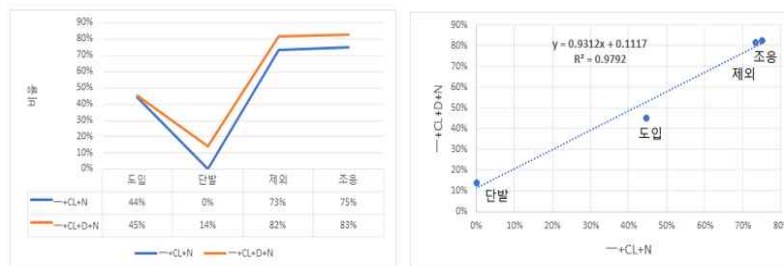


그림6(좌). 각 의미범주에 따른 지시적 목적어 비율 경향

그림7(우). 지시적 목적어에서 각 의미범주 경향성과 수식어 유무에 따른 상관성 비교

위의 표와 그래프에서 목적어의 지시성 정도에서도 위치성에 따른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치성이 높은 제외성과 조음성에서는 목적어가 지시적으로 해석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위치성이 낮은 도입성과 단발성에서는 목적어의 지시적 해석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단발성의 비율이 월등하게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타동사 목적어의 지시성에 따른 타동성과 관련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두 비한정명사구와 공기하는 타동사 목적어의 지시성이 낮으면 타동성이 낮아져 자동사와 마찬가지로 지시체가 하나의 사건 속에서 인식되고 사건-중심적 기술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지시적 목적어와의 공기비율은 위치성이 낮을 때 더 낮게 나타나지만 동일한 위치성을 지닌 도입성보다 단발성에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두 범주의 고유한 화용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3) 시공간 위치에 따른 경향성

앞서 관측했듯이, 시공간 위치요소는 자동사나, 비지시적 해석의 목적어를 수반하는 타동사와 공기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문장독립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그렇다면 담화층위에서는 위치성과 술어에 따라 시공간 위치요소가 어떠한 경향성을 나타낼까. 다음은 자동사에서 화용적 층차에 따라 시공간 위치요소의 경향성을 나타낸 것이다.

34) 도입성은 개체-중심적 기술로 해석되고, 단발성은 사건-중심적 기술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개체-중심적 해석은 주제-평언 해석과 지시체에 대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구분이 모호해지기도 한다. 특히 지시체의 제시적 해석이 아닐 경우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다. Lambrecht(1994:171)는 만약 'The BOY is chasing the CAT again(그 소년은 그 고양이를 다시 쫓고 있다)'와 같이 직접목적어를 갖는다면 사건-보고문과 주제-평언 해석 사이에서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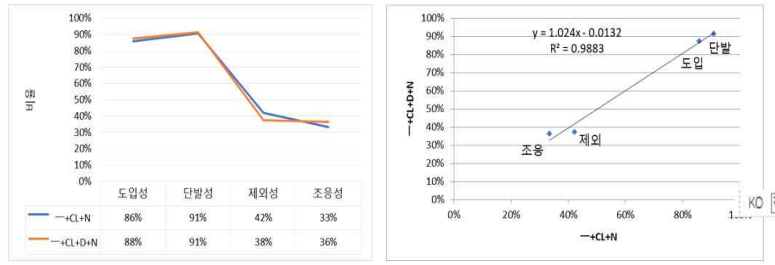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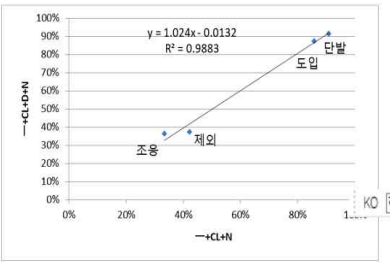


그림8(좌). 자동사에서 시공간 위치요소 출현 경향
 그림9(우). 각 의미범주에서 시공간 위치요소의 출현 경향과 수식어 유무에 따른 상관성 비교



위의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자동사에서 시공간 위치요소의 경향은 화용적 층차에 따라 뚜렷하게 나타난다. 위치성이 낮은 도입성과 단발성에서는 시공간 위치요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위치성이 높은 조용성, 제외성에서는 시공간 위치요소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공간 위치요소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를 높이는 요소라는 점과 위치성과 같은 문맥적 한정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지시적 목적어를 지닌 타동사와 공기하는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시공간 위치요소의 설정 없이 수용도가 높은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맥이 부여하는 화용적 층차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균일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다음 그래프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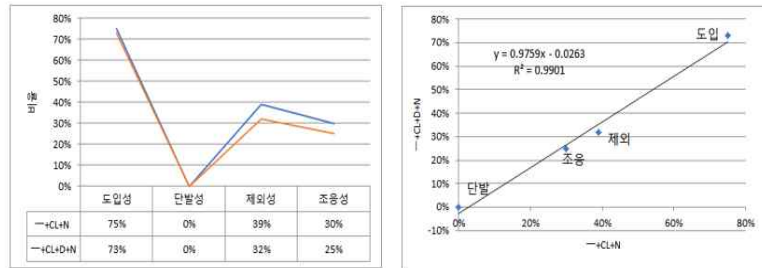


그림10(좌). 지시적 목적어를 지닌 타동사에서 시공간 위치요소 출현 경향

그림11(우). 각 의미범주에서 시공간 위치요소의 출현 경향과 수식어 유무에 따른 상관성 비교

위의 표와 그래프를 살펴보면 지시적 목적어를 수반하는 타동사에서 시공간 위치요소의 경향성은 화용적 층차가 동일한 제외성과 조용성에서 비교적 균일하게 낮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위치성과 목적어의 지시성은 시공간 위치요소의 제약에 관여하는 요소임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앞선 관측에서 위치성이 낮은 도입성과 단발성에서는 자동차의 공기에서 시공간 위치요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 낮은 위치성과 자동차와의 공기에서는 시공간 위치의 제약에 민감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위치성이 낮은 범주일지라도 지시적 목적어를 수반하는 타동사에 의해 시공간 위치요소의 제약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해볼 수 있겠다. 위의 그림10,11의 그래프에서 위치성이 없는 단발성에서 시공간 위치요소 비율이 월등하게 낮다는 점은 비록 문맥적 한정성이 없어도 목적어가 지시적으로 해석될 때 문장독립성이 높으며 시공간 위치요소의 제약이 느슨해진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가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그림에서 위치성이 낮은 도입성과 단발성에서 시공간 위치요소에 대한 양극화현상을 발견하였고, 단발성과 달리 도입성에서는 여전히 시공간 위치요소가 중요한 화용적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지시체가 담화에 새롭게 도입되어 주제지

속성을 갖는 도입성에는 일반적으로 담화의 시작부분이나 담화 속 주제 전환 부분에서 지시체가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도입성은 처음 도입되는 담화지시체를 주제로 승격시키려는 화자의 화용적 목적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시공간적 위치 요소는 담화주제의 틀을 설정해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단발성은 도입성과 동일한 화용적 층차를 지니고 있지만 담화 속에 주제로 설정되지 않고 단발적인 등장에 그친다는 점에서 상이한 화용적 기능에 따른 차등적인 양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문장층위와 담화층위에서 실현되는 양상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가 지닌 화용적 제약을 고찰하였다. 문두 비한정명사구는 자동사와 공기할 때 적형의 문형이 존재하다는 점에서 비문법적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타동사와 공기할 경우 목적어의 지시성이 높아질수록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수용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다. 또한 개사구, 부사어, 보어 등에 의한 시공간 위치요소의 설정은 이러한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출현 제약을 상쇄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문장독립성은 비교적 간단하게 층차를 구분할 수 있지만 자연언어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문맥에서의 제약 관계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러한 제약은 담화 속에서 문맥적 위치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 시공간 위치요소도 비한정명사구의 출현 제약에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위치성이 낮으면 문장독립성이 낮은 문맥에서 시공간 위치요소가 비교적 의무적이고, 위치성이 높으면 어떤 언어 환

경에서도 시공간 위치요소가 수의적이라는 점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제약은 화용적 층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5. 위치성과 언어 환경에 따른 시공간 위치요소 공기 현상³⁵⁾

위치성	범주	자동사, 동목적구(비지시 목적어)	동목적구(지시 목적어)
낮음	도입성 단발성	+	(-)
높음	제외성 조용성	-	-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의미화용적 제약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층차를 살펴볼 수 있었다. 계속되는 연구에서는 각 의미범주의 정보적 분석을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기능을 정교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심도 깊게 다루지 못했던 각 의미범주의 차등적 현상과 그에 따른 담화기능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구문적 관점에서 문두비한정명사구 구문과 명제적 동일성을 지닌 다른 구문과의 비교를 통해 문두비한정명사구 구문의 고유한 화용적 기능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통해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심화된 화용론적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35) +는 비교적 필수적이라는 의미이고, -는 비교적 수의적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는 화용적 기능에 의해 차등적으로 적용됨을 의미한다.

參考文獻

- 김혜진, 「현대중국어 'V 수 N' 구문의 생성기제와 화용적 기능-부정관사 '一个(一 CL)'의 문법화를 토대로」, 『중어중문학』 79, 115-145, 2020.
- 박정구·박종한·백은희·오문의·최영하 역, 『표준중국어어법』 (Li & Thompson, 1981), 서울: 한울, 2013.
- 박정구,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중국어 분류사의 발전 및 그와 한국어의 관련성」, 『國語學』 63, pp.391~412, 2012.
- 백은희, 「중국어의 비한정 주어 출현 현상에 대한 연구」, 『中國文學』 47, pp.197-209, 2006.
- 이성범, 『추론의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2001.
- 曹秀玲, 「‘一(量)名’主语句的语义和语用分析」, 『汉语学报』 2, pp.81-87, 2005.
- 单宝顺, 「从信息量原则看无定话题的入句限制」, 『浙江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 36.3, pp.266-272, 2016.
- 邓思颖, 「数量词主语的指称与情态」, 『语法研究与探索』 12, pp.292-305, 2003.
- 范继淹, 「无定 NP 主语句」, 『中国语文』 5, pp.321-328, 1985.
- 孔凡莲, 「从信息结构理论角度看汉语无定主语句的允准问题」, 『中国言语研究』 73, pp.45-69, 2017.
- 雷桂林, 「不定名词主语句の场面描写机能」, 『中国语学』, pp.137-156, 2008.
- 刘安春, 「‘一个’的用法研究」, 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 博士学位, 2003.
- 内田 庆市, 「汉语的无定名词主语句—另外一种存现句」, 『日本近 现代汉语研究论文选』, pp.351-361, 1993.
- 陆烁·潘海华, 「汉语无定主语的语义允准分析」, 『中国语文』 6, pp.528-57, 2009.
- 唐翠菊, 「从及物性角度看汉语无定主语句」, 『语言教学与研究』 3, pp.9-16, 2005.
- 王灿龙, 「制约无定主语句使用的若干因素」, 『语法研究和探索』 12, pp.224-239, 2003.
- 魏红·储泽祥, 「有定居后与现实性的无定NP主语句」, 『世界汉语教学』 3, pp.38-51, 2007.
- 讚井 唯允, 「语用上具体化与一般化」, 『日本近现代汉语研究论文选』, pp.363-388, 1993.
- 周思佳·陈振宇, 「‘一量名’不定指名词主语句允准条件计量研究」, 『语言科学』 4, pp.371-382, 2013.

- 朱德熙, 『语法讲义』, 北京:商务印书馆, 1981/2007.
- Aikhenvald, *Classifier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Allan, Keith, “Classifiers”, *Language* 53, pp.285-311, 1977.
- Givón, Talmy, “On the development of the numeral ‘one’ as an indefinite marker”, *Folia Linguistica Historica* 2(1), pp.35-53, 1981.
- Hawkins, John A., *Definiteness and indefiniteness: A study in reference and grammaticality prediction*. Routledge, 1978/2015.
- Heine, Bernd, *Cognitive Foundations of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Lambrecht, Knud,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Vol. 7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Li, Wendan, “The Pragmatic Function of Numeral-Classifiers in Mandarin Chinese”, *Journal of Pragmatics* 32, pp.1113-1133, 2000.
- P. J. Hopper and S. A. Thompson., “Transitivity of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2), pp.251-299, 1980.
- “The discourse basis for lexical categories in universal grammar”, *Language* 60(4), pp.703-752, 1984.
- Loock, Rudy, “Extending further and refining Prince’s taxonomy of given/new information: A case study of non-restrictive, relevance-oriented structures” *Pragmatics* 23.1, pp.69-91, 2013.
- Sasse, Hans-Jürgen, “The thematic/categorical distinction revisited”, *Linguistics* 25, pp.511-580, 1987.
- Sun, Chaofen, “The discourse function of numeral classifiers in Mandarin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2, pp.298-322, 1988.
- Teng, Shou-hsin, *A Semantic Study of Transitivity Relations in Chinese*,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in Linguistics 8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75.
- Wright, Suzanne and T. Givón, “The Pragmatics of Indefinite Reference”,

Studies in Language 11:1, pp.1-33, 1987.

Wu, Guo, *Information structure in Chinese*. Peking University Press, 1998.

Xu, Liejiong, "Limitations on subjecthood of numerically quantified noun phrases: A pragmatic approach" *The Referential Properties of Chinese Noun Phrases*. Paris: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25-44, 1997.

Abstract

Pragmatic constraints of initial indefinite noun phrases in Mandarin

Kim, Hye 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agmatic constraints of initial indefinite noun phrase in Mandarin. Indefinite noun phrases are often regarded as ungrammatical when used with intransitive verbs. Indefinite noun phrases are typically transformed into a verb-subject word order when used with intransitive verbs. However,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acceptability of initial indefinite noun phrase can be improved by semantic-pragmatic factors such as referentiality of transitive object and spatio-temporal location. These factors affect the acceptability of initial indefinite noun phrase at the sentence level. On the other hand, at the discourse level, initial indefinite noun phrase can be analyzed in various ways. At the discourse level, initial indefinite noun phrase can be judged for their locationality through contextual restriction, and their realization can vary depending on their location. Through this, we can see that various pragmatic constraints of initial indefinite noun phrase in natural language are manifested through their mutual relationships in numerous contexts created by natural language.

Key words : indefinite noun phrase, one(yi)+CL+N subject, intransitive verbs, referentiality, definiteness, locationality, classifiers, indefinite marker, categorical sentences,thetic sentences

투 고 일 : 2023. 4. 10. / 심 사 일 : 2023. 4. 15.~ 2023. 5. 15. / 게재확정일 : 2023. 5. 20.